

강진 병영 '불금불파 시즌2' 흥행몰이 예고

10월26일까지 매주 금·토 진행...서틀버스 운행 청년 세프존·할머니장터·하멜감성 텐트촌 등 인기

강진 병영면이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시즌2로 돌아와 관광객들로 분야성을 이뤘다.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반값 여행의 해를 맞아 불금불파 시즌2를 개막, 올해 첫 행사에 관광객 1천100여명이 병영면을 찾아와 강진의 늦은 오후와 야경을 즐겼다.

병영면에서 펼쳐지는 불금불파는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민선 8기 강진군이 선보인 것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로 함께 엮어 로컬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은 불금불파 시즌2 성공을 위해 불고기 음식점 1개소, 분식 1개소, 매대 4개소와 청년 세프존을 새롭게 구성

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 관광객들의 입맛을 적극 공략했다. 불거리와 즐길 거리도 더욱 강화했다. LED투입과 대형 꽃 조형물로 포토존을 강화해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인생샷 명소로 만들었다.

특히 불금불파의 백미인 EDM DJ와 함께하는 댄스파티는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돼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한데 뭉쳐 병영의 밤을 하얗게 불태웠다.

올해 불금불파는 지난해에는 없었던 '한골목 열린 정원'이 새로운 볼거리로 마련됐다. 병영면의 개인 주택과 공유자, 빈집 마을 호텔 등 모두 15개 구역에 소박하게 조성된 정원을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병영의 과거와 현재를 관광객에게 알리는 색다른 홍보와 소통의



강진군이 올해 불금불파 시즌2를 개막하고 첫 행사에 늦은 오후까지 방문객이 잇따라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이 됐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와 청년세프존, 하멜의 티타임, 농부장터, 할머니장터가

상황을 이뤘으며 체험인원도 500명에 육박했다. 아트마켓과 한골목 열린 정

원, 한골목 이야기 투어와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진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통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광주권 나들이객을 위한 서틀버스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유스퀘어 3번출에서 출발한다. 일정을 마치면 오후 7시40분에 다시 광주로 향한다. 서틀버스는 온라인 버스 한바퀴 홈페이지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1층에서 오프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강진원 군수는 "불금불파는 강진의 대표 먹거리인 병영 돼지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사라져가는 병영 전통시장이 불금불파로 명맥을 잇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로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강진을 통해 인구 유입 등 경제 효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불금불파 시즌2는 오는 10월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완공...본격 분양

내달 준공 행정절차...항공MRO·항공물류·부품 업종 입주 분양가 평당 52만원선...산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무안군이 지난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 관련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466억원, 면적 35만3000㎡ 규모의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를 완공했다.

무안군은 오는 5월까지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에는 항공MRO, 항공물류, 부품 등의 업종이 입주하게

되며, 현재 산업시설용지 중 4만㎡는 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지로 확보되어 있다.

또한 2019년 무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무안에어로테크닉스는 항공MRO부지에 대한 분양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지난 3월 군과 반도체 관련 7개 기업은 1천300억원 규모의 산단 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에 흥분이 불고 있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2개의 고속도로와 목포항에 인접해 있고 2025년에는 KTX가 개통되는 교통요충지로의 지리적 우수성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확보된 3개의 대학이 위치해 투자에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분양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분양가 산정 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15만8천700원/㎡(약 평당 52만4천700원)이며, 추후 분양계획 일정에 맞춰 분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 이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 측량된 면적으로 분양단가에 대한 추후 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무안군과 전남도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를 '반도체·항공정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반기 내 특구 지정을 목표로 힘을 모으고 있다.

/무안=김성호기자

한빛원자력본부, 한마음 힐링콘서트 성료

한수원·영광지역 주민 화합의 장 한수원 힐링콘서트를 통해 상대적

으로 예술과 문화 혜택을 누릴 기회가 적은 원전 주변 지역의 원전 산업 종사자와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화합의 시간을 제공했다.

다음 달에는 경북 울진군의 한울원

한수원은 힐링콘서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예술과 문화 혜택을 누릴 기회가 적은 원전 주변 지역의 원전 산업 종사자와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화합의 시간을 제공했다.

다음 달에는 경북 울진군의 한울원



전남인적자원개발촉진,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사업 추진 현황 보고·공동위원장 선출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5일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제1차 본위원회 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회의는 박정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박대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 고창희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위원회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사

업을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를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를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를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를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를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를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를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해

를 위한 지원사업 5개·육성사업 47개 업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남지역의 인력 양성 방향 설정과 훈련 공급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지역 인재 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사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직업능력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2024년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 문 연다

내달 16일 개관식...미디어파사드·MR 체험 교육장 등 구성 해남군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의 거점이 될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자원순환복합센터는 2020년 정부 그린뉴딜 과제인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해남읍 해리에 지상 3층, 1천114㎡ 규모로 신축했다.

센터 1층에는 재활용품 교환센터와 리필샵, 2층에는 교육장 및 재활용품 나눔공간, 공유물품 대여센터, 기획전시 공간이 들어섰다.

3층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자원 순환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와 MR의 입체 체험 교육장을 조성했으며, 주민들이 자원 순환 포인트로 음료 등을 마시며 쓸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구성했다.

자원순환복합센터는 건축물 내 1회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와 MR의 입체 체험 교육장을 조성했으며, 주민들이 자원 순환 포인트로 음료 등을 마시며 쓸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구성했다.

자원순환복합센터는 건축물 내 1회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와 MR의 입체 체험 교육장을 조성했으며, 주민들이 자원 순환 포인트로 음료 등을 마시며 쓸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구성했다.

자원순환복합센터는 건축물 내 1회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와 MR의 입체 체험 교육장을 조성했으며, 주민들이 자원 순환 포인트로 음료 등을 마시며 쓸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구성했다.

자원순환복합센터는 건축물 내 1회

용품 반입·사용이 금지되고, 센터 내 모든 시설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인 '땅끝희망이' 포인트를 사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관식은 오는 5월16일로 나머지 시설들도 관광객들을 맞을 프로그램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 교육도 시작한다.

/해남=박필용 기자



자원순환복합센터 입체체험교육장.



자원순환복합센터 재활용품교환센터.

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2천226농가·1천713ha 완료 국내 최대 배추산지인 나주시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약제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 현장 예찰·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올해 5억7천만원을 투입, 지난 달 초 방제약제 3종을 농업인 2천226농가(합계 면적 1천713ha)에 공급했다.

또한 올바른 방제 요령 숙지를 위한 농가 현장 방문·지도, 전단지 배부, 문자 전송 등 기술적인 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 예방·방제단을 꾸려 관내 전체 과수원 현장을 직접 예찰하고, 외부인 출입금지를 당부하는 현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동·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에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발생 대응 모의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 발병이 의심되면 즉시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1833-8872)로 신고해야 한다.

발병 시 손실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사전방제 약제 공급 시 함께 배포한 약제방제 확인서와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당해 사용한 약제 공병 역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주=정준환 기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 '플라스틱 없는 섬' 만든다

플라스틱 제로 2050 선포...자연순환형 플랫폼 구축 신안군은 25일 "지난 22일 군청에서 정부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정책에 따른 선

제 대응의 하나로 '순환경제도시, 신안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강화 추세·자원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위기, 환경 위험 증가 우려에 따른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연 순환형 생태계 조성에 신안군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은 신안군 내 농수산 부산물 및 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보급으로 205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 처분에 있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자연순환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안군은 이와 관련 자연순환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 그리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코(Grieco)는 식량으로 사용 불가한 쌀을 활용해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제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추진을 위해 ▲친환경 제품 생산단지 설립 ▲개발 제품의 산업화에 상호 협력·추진 등 신안군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천연자원 기반의 자연순환형 플랫폼 구축이다.

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안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양홍기 기자